

# 경찰, 보험사기 자백 받고도 1년째 질질

### 작년 8월 수사, 마무리 못해...각종 의혹도 제기

### 경찰, 감찰 착수...“자료분석 등 추가 수사” 해명

경찰이 보험사기 용의자들의 자백을 받고도 1년 가까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보험사기 사건'이 1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씨(38) 등 11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쯤 일부 용의자들로부터 A씨가 주도해 주변 사립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1년 동안 추가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건을 검찰로도 송치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용의자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욕설과 협박 등을 받았고 보험금은 포기하겠다는 협의를 하라고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됐거나 사건 담당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논란이 제기되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추가로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를 밝혀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수사기록에 협의서를 작성했는지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말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용의자들이 자백했던 것을 보험사에 알리는 부분도 보험사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용의자들이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 중단한 것에 대해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며 “추가 보험금 지급 피해를 막기 위해 자백한 것을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불였다.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을 받은 후 시스템 상에는 진술 등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꾸준히 이어왔고, 다른 보험사기 범행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며 “자료 분석과 수집 등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일부 용의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 등등만 했다고 이야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일부 용의자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백 이후 협의를 부

인하면서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를 부인하는 용의자들의 범행 중 일부를 입증하는 등 수사는 계속 벌이고 있다”며 “수사를 하지 않거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내용, 협의서를 강요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봉우 기자



명절 피로 푸는 어르신들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을 하며 명절 피로를 풀고 있다.

## 추석 연휴 광주·전남서 중요범죄신고·교통사고 감소

추석 연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중요범죄 신고와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일부터 전날까지 교통사고가 일평균 17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30건에 비해 44%가 감소했다.

또 부상자 수도 293명에서 103명으로 5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이나 강도, 절도, 성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도 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도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절도는 지난해보다 3.6%가 줄었다.

가정폭력 신고도 지난해보다 18.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도 중요범죄신고와 교통사고 등이 감소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일부터 전날까지 일평균 112건

고가 1622건으로 지난해 추석연휴의 1691건에 비해 4% 감소했다.

또 살인이나 강도, 절도, 성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도 지난해 일평균 42.8건에서 33.6건으로 21%가 줄어 들었다.

가정폭력 신고도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20건으로 26%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범죄의 신고도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46건에서 올해는 36건으로 감소했다.

교통사고도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일평균 15.8건에 비해 12건으로 감소했고, 부상자도 일평균 33건에서 17건으로 49%가 줄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부터 15일 까지를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치안활동을 추진했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재발우려가정을 선정해 지역경찰·여청

수사팀과 함께 범죄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4시45분쯤 돈이 없어 이틀째 음식을 먹지 못한 시각장애인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한편 구청과 연계해 홀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친척집에 방문한 자폐아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인근 공원과 건물, 정고 등을 수색해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사람들을 구해주시기도 했으며,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마지막날까지 빈틈없는 치안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교 소프트볼팀, 지원금 과다수령 적발

순천의 한 고등학교 소프트볼팀이 선수 부풀리기로 지원금을 과다수령한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 A여고 소프트볼팀은 현재 15명의 선수가 등록돼 교육청과 전남체육회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도교육청 조사 결과 선수 15명 가운데 일반 학생이 5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여고 팀에 지원된 공식 지원금은 선수 15명을 기준으로 학교예산 750만원, 자치단체 보조금 332만5000원, 도교육청 2500만원에 이른다.

또 해당 소프트볼팀은 지난해 전국제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후 출전하지 않은 일반학생 5명의 상급을 받던 받아, 이들에게는 소액 상품권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A여고 소프트볼팀 교사는 현재 학부모지원금 횡령 등 다른 건으로 전남도체육회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등록된 선수 수에 따라 훈련수당과 경기 출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허위 등록 여부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교육청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한 만큼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타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34차례 절도행각 40대 노숙인 구속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무인세차장, 주유소, 식당, 바닐하우스 등지에서 돈과 생필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씨(4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35분쯤 광주 광산구 한 셀프세차장에서 공구를 이용해 현금 21만4000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중순부터 광주 서구와 광산구, 전남 나주 등지에서 34차례에 걸쳐 현금과 식료품, 옷가지 등 약 4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달여 잠복근무 끝에 지난 14일 김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출소 후 한 가지역 인근에서 노숙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밤중에 관리자가 없는 세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 클럽 사고’ 관계자 11명 검찰 송치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C클럽 붕괴사고로 입건된 클럽 관계자 등 총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 6일 전·현직 관리인 5명에 이어 클럽 건물관리인, 공사시공업자, 회계담당직원, 총지배인, 안전관리대행업체 2명 등 6명을 추가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전·현직 업주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시공업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무너진 클럽의 불법 증축 구조물이 하중 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설계됐고 자재나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했다고 보고 인재로 인한 부실시공과 관리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법증축에 가담한 관계자들과 구조물 점검을 소홀히 한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 흥기 휘둘러 지인 살해후 자수 60대 긴급체포

고흥경찰서는 13일 자신의 돈을 갖지 않자 지인을 흥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B씨(69)의 렌트차에서 흥기를 수회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칼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를 했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전 A씨가 B씨에게 “군청 앞에서 만나지”며 연락을 했고 범행을 위해 미리 흥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